

올 봄 불청객은 황사 아닌 강풍이었다

4월 광주·전남, 고온·강풍·호우 이상기후 매년 여러차례 황사, 올엔 한차례도 없어

지난 4월 광주·전남 지역은 이상 기후 현상이 잦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온·강풍·호우 등의 극값 경신이 이뤄진 반면 봄의 불청객 황사는 자취를 감췄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광주·전남 4월 기상 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고온 26.5%, 장풍 24.2% 세기의 바람이 불면서 4월 일 최대 순간 풍속 극값 경신했다.

이는 대기하층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지상의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 강풍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달 2~3일 사이 저기압이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급격히 발달한 것도 원인이 됐다. 또 같은 달 21일 완도 149.0mm, 혹은 산도 66.0mm 등의 비가 내려 '4월 일 강수량 극값'을 갈아치웠다. 앞서 같은 달 3일과 25일에도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따뜻하고 습한 저기압이 남쪽해상을 자주 통과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 9일과 15일, 24일, 28~30일 등 모두 5일에 걸쳐 따뜻한 남서·남동기류가 자주 유입되고 강한 일사에 의해 지면가열이 더해지면서 고온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같은 달 상·중순의 쌀쌀한 날

씨와 대조적으로 큰 기온 폭을 보였다. 기상청은 대륙고기압이 빠르게 약화된 후 남쪽으로 저기압과 이동상 고기압이 통과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봄철 불청객으로 느껴졌던 황사가 올 봄에는 한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와 2010년 각각 8차례, 9차례 발생했던 점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기상청은 중국의 황사 발원지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농도가 평년에 비해 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 인근을 지나는 저기압도 평상시에 비해 북쪽으로 형성돼 보통 봄철에 서·북서풍이 불어 중국의 황사 발원지에서 먼지와 바람을 싣고 오지만 올해는 남풍이 자주 불어 황사가 바람에 실리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난달 3일 광주·전남 지역에 몰아친 25% 세기 안팎의 강풍으로 인해 광주 시 광산구 수원동 한 상가건물 간판이 떨어져 직원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기상청은 강풍의 원인이 대기하층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상층의 차가운 공기가 빠르게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강하게 발달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환경이야기 <4>

“강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물 좀 아껴 쓰자는 저의 말에 아이들은 “엄마,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자꾸 그래야만 해요? 마트에 가면 물을 많이 팔잖아요?”라면서 반박을 합니다. 남편은 한 술 더 떠서 절약을 제대로 하기 위해 씻지 않겠다고 엄포까지 놓습니다.

실제로 저는 1회용 컵이나 용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세제나 샴푸의 양도 4분의 1로 줄여줍니다. 알맞게 먹고 적게 버리면서 사는 저의 태도가 가족의 눈에는 돈 몇 푼 아끼려는 잔소리로 비쳐졌나 봅니다.

젓줄 영산강을 보면서 오히려 경제발전과 성장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폐기물도 힘들게 했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영국의 템즈강도 오염이 심각했습니다.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었던 런던의회에서는 환경관련 법안을 정비했고 정부는 하수처리장을 늘려 하수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NGO단체들은 캠페인에 나서고 시민들은 자신이 오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 강을 살리는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의 템즈강 살리기 운동은 마치 강을 형제로 여기는 인디언들의 자연 사랑과 같은 것이었

생명의 젓줄 강을 사랑하자

아이들에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디언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자연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사는 법입니다. 필요한 것 외에는 자연에서 절대로 더 빼앗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강에서도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동물도 그들의 형제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자연의 모든 생명체는 마치 형제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보존 능력이 그것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든 나무와 풀이 빗방울의 힘을 약화시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또 식물들의 뿌리는 흙이 때때로 흘러내려오도록 흙도 빗물을 머금고 있다가 서서히 깨물과 강으로 흘러보냅니다.

자연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혜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을 형제처럼 대하고 있을까요? 남도의

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 1883년 템즈강에서 자취를 감춘 연어가 110년만인 1970년대 후반부터 다시 찾아옵니다.

시애틀 주장은 편의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 땅을 내주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땅과 대기와 강물을 우리가 보살폈듯이 애써 보살피고 간직해 달라. 우리가 사랑했듯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강은 우리의 형제이다.”

이제부터는 형제에게 하듯이 강에게도 친절을 베풀어달라는 그의 말을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박진영
영산강환경청 홍보대사

광주천에 예덕나무 첫 발견

'모래톱' 회원, 두물머리서 양유교까지 식물 관찰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회원들이 지난 6일 오전 광주천 두물머리에서 양유교까지 광주천을 답사했다.

이들 회원들은 올해 새봄에 발견된 예덕나무에서부터 꽃을 한창 피우기 시작한 사초과와 벼과 식물인 잠나도나물, 방가지똥, 살갈퀴, 꿩이발, 사상화, 꽃마리, 굴피나무, 선피막이, 수레국화, 애기풍뎠, 토끼풀, 환삼덩굴, 사상좌, 고들빼기, 땅초, 달맞이, 원주

리, 마가렛 등 각종 식물들을 관찰했다.

모래톱 관계자는 “광주천에 토종은 물론 외래종, 인공식재였던 식물, 유해식물이라 불리는 다양한 식물들이 점차 재 있었다”며 “물 속에서는 금지막한 잉어들이 수시로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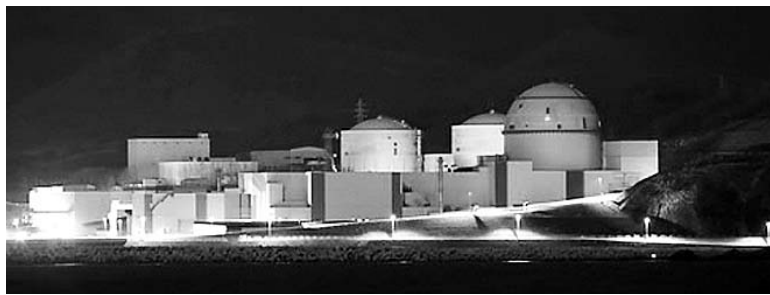
모래톱 답사 참가 문의 062-514-2470.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일, 53년만에 '원전 제로'... 최악 전력난 우려

기업 등 절약방안 마련

일본 내 상업용 원자로 50기가 지난 5일 모두 멈추었다. 이는 53년만의 일로 일본 국민은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원전' 없이 전력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난 5일부터 일본 내 원자력 발전소가 모두 멈추면서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고 있다. /연합뉴스

훗카이도전력은 지난 5일 '도마리 원전 3호기(출력 91.2만kW)가 전력 생산을 중단하고 정지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에 원자로에 제어봉을 넣어 출력을 낮추기 시작했고, 오후 11시에 예정대로 발전을 중단했다.

도마리 3호기를 마지막으로 일본의 원자로 50기(폐쇄된 후쿠시마 제1 원전 1~4호기 제외)는 전력 생산을 모두 중단했다.

일본은 1966년 7월부터 원전을 가동했고, 1970년 4월30일~5월4일 2기뿐이던 원자로가 동시에 정지점검에 들어가면서 일시적으로 '원전 제

로' 상태를 맞은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까지는 54기 중 37기가 전력을 생산하고 있었다. 사고 후 방사능 불안이 커진 탓에 정지점검을 끝낸 원전을 재가동하지 못해 가동 원전이 줄었다.

원전을 모두 멈추면서 올 여름 전력 부족이 예상된다. 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은 15% 전력 부족을, 규슈와 홋카이도 지방도 전력난이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후쿠이 현의 오이 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했지만 현지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로 실현하지 못했다.

재계는 불안스러워하고 있다. 요네쿠라 히로마사 게이단련 회장은 “원자로 재가동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붕괴해버릴 것”이라며 “화력 발전 가동률을 높여도 안전 공급은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자로 '올 스톱'을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원전이 모두 멈추면서 올 여름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자 일본 기업과 지자체가 조금이라도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느라 머리를 짜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31% "유해화학물질 피해 최우선 해결해야"

국민이 생각하는 환경부가 해결할 최우선 과제는 '유해화학물질 피해관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가 최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공공 화학물질에 관한 국민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가자의 31%가 '유해화학물질 피해관리'를 꼽았고, 80.1%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우려 정도는 공장·소각시설 관련 화학물질 (35.7%)이 가장 높았으며 가정용품 관련 화학물질이 27.0%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가정용품과 관련된 화학물질에 대한 우려가 지난 2002년 조사에 비해 9% 넘게 증가했다.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참가자는 38.1%, 기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한 참가자는 24.6%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 | | | | | | |
|---|---|---|---|---|--|---|
| 충정동[이포위] 대1708m2, 전18171m2 감정가 310억 최저가 138억9천 | 영암삼호[근린시설] 대777m2, 전1152m2 감정가 9억2천 최저가 5억1천 | 화순도곡[병원적합] 대3234m2, 전24280m2 감정가 42억3천 최저가 18억9천 | 동명동[고시원] 대1080m2, 전22555m2 감정가 22억9천 최저가 14억4천 | 신안동[스포츠타운] 대3026m2, 전35984m2 감정가 19억3천 최저가 31억 | 치평동[유형주택] 대164m2, 전2944m2 감정가 19억8천 최저가 15억8천 | 중흥동[병원적합] 대2075m2, 전12510m2 감정가 124억7천 최저가 44억7천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 | | | |
|--|--|---|--|
| ▶ 강원정선(관광호텔) ▶ 대지 993평 ▶ 건물 4989평 ▶ 감정가 85억 ▶ 매매가 30억(협의후결정) | ▶ 대전(웨딩홀) ▶ 대지 958평 ▶ 건물 5346평 ▶ 감정가 222억9천 ▶ 매매가 130억(협의후결정) | ▶ 광주 삼평동(유형시설) ▶ 대지 1520평 ▶ 건물 944평 ▶ 감정가 89억7천 ▶ 매매가 40억(협의후결정) | ▶ 담양(금성(공장) ▶ 대지 1482평 ▶ 건물 239평 ▶ 감정가 7억 1600만 ▶ 매매가 5억2천(협의후결정) |
| ▶ 용봉동(하이스포크스) ▶ 대지 4076평 ▶ 건물 12943평 ▶ 감정가 515억7천 ▶ 매매가 160억(시세비별도) | ▶ 곡성석곡 공장 ▶ 대지 8754평 ▶ 건물 2891평 ▶ 감정가 44억3천 ▶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 ▶ 전북완주 봉동 공장 ▶ 대지 7125평 ▶ 건물 5465평 ▶ 감정가 135억 ▶ 매매가 80억분할가능(협의후결정) | ▶ 순천 조래동(주차빌딩) ▶ 대지 646평 ▶ 건물 1708평 ▶ 감정가 43억 ▶ 매매가 18억2천(협의후결정) |

근린시설/원룸 정현로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구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종원이사 010-8227-7759

| | | | |
|--|--|---|---|
| 소재지 수원동 대476,21700 금동 대499,21854 곡성동 대1837,21776 신안동 대3026,25984 중흥동 대2075,212510 개령동 대175,21638 화순동 대261,21404 마산동 대252,21488 충정동 대2708,218171 화순동 대3234,214280 | 면적/건물 10억1천 12억 4억 69억 124억 4억 3억4천 16억 310억 42억 | 건물/평 2억5천 6억1천 1억8천 31억 10층건물 2억 5층건물 1억9천 5층건물 18억 | 비고 2층건물 5층건물 2층건물 10층건물 10층건물 2층건물 3층건물 3층건물 5층건물 4층목욕탕 |
|--|--|---|---|

아파트/빌라 박미림팀장 010-9900-3002 주택/재개발 박미림팀장 010-9900-3002 근린주택 박미림팀장 010-9900-3002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왕(지하)호프, 분식60평원동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 대출+보증금제후 실인수가 2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에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함>

- 일반상가 건물 :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가족주택(원룸, 투룸, 소리룸)

<토지구함>

- 지역 : 광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 면적 : 200평 ~ 300평, • 용도지역:지연복지 • 용도 : 주차장
- 참고금액 300평 정도 대형저렴전입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 자연녹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지역 2397㎡(725평) 평당 95만원
- 공장 철고용도로 적합
- 비어있는 자연녹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외 매도물건>

- 물류창고부지 : 장성군 황평면, 장성IC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가능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명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대인동상업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으로 motel,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투본과 연일 본 손님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들 팔거나 임대료를 내시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전화 011-602-2532
(광주동 신봉정면, 대인동 상생사건내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 보성동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 보성동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평당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억5천만)
-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면적 31억(31억)
- 임대보증금 95억 월 1,500만원

토지(매매)

-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형가능,4성영업중)
-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변화가사거리근처)
-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유형가능)
- (상무지구)3,400㎡(91,000평) 평당 750만원(시정할)(회사사옥,오피스텔등 적합)
- (동림지구)중주까지 운안~하남간대로변(4,470㎡(91,352평) - 평당330만 (예식장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가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때마다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전화 011-609-5221
(상무지구 이비동 김자영 1층)

기은 부동산

상무지구 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건평 : 900평
-보증금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유자금 : 10억원
-매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3억5천만원 월 650만
-유5억포함
-매매가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치과)

광주시내 2층 주거지역 토지구함

-면적 500-1000평
상무지구 렌더피어 사거리 010-8289-8549